

# “굶주림·발길질... 그 고통 지금도 생생”

## 광주지법 미쓰비시 2차 재판

### 양금덕·김재림 할머니 증언 “중학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임금 착취·차별...눈물의 세월 일본 사죄받아 한 풀어달라”

“공부시켜준다고 해서 갔더니...우리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한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7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 403호에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금덕 할머니(89)와 김재림 할머니(88)가 일본 강제동원의 아픈 기억을 증언했다.

증인석에 앉은 양 할머니는 일본에 강제 동원됐던 상황에 대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기억이 생생하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양 할머니는 “밤도 배불리 먹여주고 중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아버지의 반대에도 도장을 찍어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출발 직전에 역 앞에서 통곡하는 부모님을 보고 눈물이 나왔다”고 울먹였다. 이어 “중일 비행기 부족이나 알루미늄 철판의 녹을 알코올로 닦아내고 완성된 비행기에 시너가 섞인 페인트를 칠해야 했다. 눈에 페인트나 알코올이 튀어 물로 씻어내기라도 하려 하면 일본인 감독관들이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또, “제대로 된 밥은커녕 썩은 감자를 넣은 밥을 줬다. 너무 배고파야 잔반통을 뒤지기도 했다”며 “월급은 전부 저금해 놓는다면서 한푼도 주지 않았다. 저금도



지난 7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 403호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의 2차 소송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김재림, 양금덕, 심선에 할머니와 나고야 소송 지원회 다카하시 대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가짓말이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 할머니는 화순 능주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4살 때 광주의 한 친척집에 머물렀던 중 일본으로 강제 동원됐다. 김 할머니는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자라 형편이 어려워 광주에 있는 친척집에서 아이들을 봐주던 중 일본을 가면 배불리 밥도 먹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부모님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친척언니와 함께 일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일본에 도착한 후 한참 뒤에 부모님께 일본에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고 말했다. 일본 생활에 대해 김 할머니는 “비행기에서 페인트칠

을 하거나 부품을 닦는 일을 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숙소에 들어오면 옷도 못 갈아입고 쓰러져 잠이 들었다”며 “페인트에 섞는 시너와 녹을 닦는 알코올의 독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했지만 마스크나 장갑도 없이 일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 지진으로 무너진 공장에 갇혔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김 할머니는 해방 후 귀국해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살아왔다. 일본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결혼 당시 남편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 자식들에

게도 근로정신대에 대한 이야기를 터놓지 못했다. 자식들이 30대 중반이 돼서야 밝혔다. 김 할머니와 양 할머니는 “나이 90을 앞두고 될 더 바라졌다. 하루빨리 일본의 사죄와 함께 우리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상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일본 지원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와 광주대학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4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제발 살아서 돌아오길” 애타는 목포

### 남대서양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한국 선원 8명 전원 실종

### 목포 선원 1명·목포해양대 졸업생 3명 탑승...무사 염원 물결

지난달 3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역에서 실종된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 데이지호’에 목포 출신 선원 1명과 목포해양대학교 졸업생 3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국선사인 폴라리스쉬핑과 외교부에 따르면, 사고 선박에는 선장, 기관사, 항해사 등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6명 등 모두 24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선원 8명 가운데는 목포 출신인 임모(39)씨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선장 조모(47·전북 순창군)씨, 1항사 박모(39·서울 강북구)씨 그리고 3항사 윤모(26·경북 영천시)씨는 각각 목포해양대학교 37

기, 46기, 59기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양대학 광주지역 동창회’커뮤니티에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해역 주변을 항해중이던 김병오씨는 커뮤니티를 통해 “사고 소식을 듣고 돕기 위해 현장에 왔지만 바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다”는 소식을 전했고, 강철원씨는 “후배들이 사고를 당해 안타깝다. 꼭 찾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밖에도 “선배님들 모두 살아있길 바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또, 네티즌들은 “세월호의 기억이 떠올라 슬프다”, “제발 해상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살아있길 기도한다”,

“바다만 봐도 가슴이 철렁한다. 하루빨리 구조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스텔라 데이지호는 지난달 26일 브라질에서 출발해 우루과이 인근 해역(브라질 산투스 남동방 1550마일)을 항해하던 중 한국시간 3월 31일 밤 11시20분께 소속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에 선박 침수 사실을 알린 뒤 연락이 두절됐다.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은 한국시간으로 9일 해역 주변을 수색하던 미군 초계기(P-8A)가 구명벌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수복, 구명조끼 등 선박 부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현재 7척의 선박이 수색을 진행중이다. 이 사고로 당시 이중 구명뗏목에 타고 있던 필리핀인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병원 출입문·간판 파손

### 광주 조현병 40대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이모(48)씨를 병원의 출입문과 간판 등을 둔기로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지난 7일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6일 밤 10시15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병원에서 둔기를 휘둘러 유리창과 광고판,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정신과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문이 닫혀있어 귀가한 뒤 둔기를 들고 다시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1999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조현병 환자라고 밝혔으며, 이씨는 ‘병원 안에 사람이 있으니 문을 부숴라’는 환청에 시달리다가 병명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7 | 해질 19:01 | 달 뜨기 18:06 | 달 지기 05:41

**봄꽃 만발**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흐림	10/21	보성	가름호리고비	8/16
목포	흐림	10/18	순천	가름호리고비	10/18
여수	가름호리고비	10/16	영광	흐림	8/19
나주	흐림	8/20	진도	가름호리고비	11/17
완도	가름호리고비	10/16	전주	흐린뒤맑음	10/21
구례	흐림	7/18	군산	흐린뒤맑음	9/20
강진	가름호리고비	9/18	남원	구름맑음	7/19
해남	가름호리고비	9/18	홍산도	가름호리고비	8/14
장성	흐림	8/2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해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남부	남부	북동~동	0.5~2.0	북~북동	0.5~2.0
남해	남해	북동~동	1.5~3.0	북동~북서	1.5~3.0
남해	남해	북동~동	1.0~3.0	북동~북서	1.0~3.0
남해	남해	북동~동	3.0~4.0	북동~북서	3.0~4.0
남해	남해	북동~동	3.0~4.0	북동~북서	3.0~4.0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높음
- 자외선
- 낮음
- 피부질환

**주간 날씨**

날짜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날씨	☁	☀	☀	☁	☀	☀	☀
기온	8/14	7/19	6/20	8/20	10/20	10/24	11/18

## 5월 단체 “전두환 회고록 즉각 폐기를”

### 광주시의회서 성명

5·18관련 단체들이 “망언을 담은 회고록 편찬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폐기를 촉구했다. 5·18 유엔유네스코등재 및 기념사업위원회, 5·18 3단체, 5·18 기록관 대표들은 지난 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 “쓰레기에 불과한 회고록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전 전 대통령이 광주학살과 발포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내란 혐의도 전면 부정하는 등”에 대해 오해를 유도했다고 기증스

려운 변명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시대적 상황’이 12·12와 5·17을 불렀다는 궤변은 그의 사유 아직도 군사독재와 유신의 사슬에 매여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전두환 회고록 즉각 폐기 ▲전두환 사죄 ▲5·18 평화·외국 방위 관련법 제정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 등에 관한 진실규명 ▲5·18 민주화운동의 종합보고서 정리적립 추진 등을 촉구했다.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망언 관련, 오사모(오월을사랑하는모임) 회원 10여명은 11일 오전 전 전 대통령 집을 찾아가 항의 시위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인혁당 희생 42주기...서울서 추도식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탄압 사건인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희생자 42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조용한 추도식이 열렸다. 인혁당 희생자 추모기관인 4·9통일평화재단은 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9통일열사 42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추도사를 맡은 김상근 목사는 “님들을 교수대에 세웠던 박정희의 딸은 대통

령에서 파면됐으니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님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이어오던 박정희 시대를 거두고 끝장내고 말았습니다”라고 희생자를 위로했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유신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국가전복활동’을 지휘하려 했다’고 몰아 이듬해 8명을 사형시킨 사건이다. /연합뉴스

# 착한보청기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